

# 고통받는 행성을 위하여

해리 팔머

아봐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그것이 한 사람의 기질을 일깨워 그로 하여금 동료 피조물의 고통을 누그러지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따금 아봐타 수료자들 중에는 동료가 겪는 고통을 동정하는 것과 교재에 대한 대외비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을 겪는다. 또 어떤 아봐타 수료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긴급 CHP(창조 다루기)를 시도하려 했노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CHP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지 않았거나 또 그 기술에 대한 훈련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고통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들을 고통에서부터 풀어놓을 수 있는지?

해답은 다시 떠오르기의 12번째 연습, 바로 “묶여있는 주의를 풀어놓기”이다.

이따금 아봐타 수료자들 중에는 동료가 겪는 고통을 동정하는 것과 교재에 대한 대외비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을 겪는다.

아봐타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한 남자에게 내가 안내해 주었던 상황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이것은 왜 CHP의 긴급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연습 12”가 왜 효과가 있는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에는 매우 기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으며 그의 주치의는 그의 무릎에서 어떤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실험수술을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후에 밝혀졌지만 나는 그때 그것이 바로 끈질긴 덩어리임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주의를 무릎과 다른 사물에 반복하여 쏟기를 적어도 열 번 또는 어떤 무릎에 어떤 완화됨을 느낄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또한 이것을 기사화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해도 좋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좋다고 동의했다.

• • • •

우리는 이 과정을 하기 위해 방충망으로 가로막은 현관에 있는 라운지 의자에 자리를 잡았고 먼저 무릎에다 주의를 쏟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가 무릎을 조금 움직일 때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바로 이거예요. 거의 언제나 이런 식으로 아파옵니다. 밤에는 더욱 심하지요. 워랄까 여기에서부터 쿡쿡 쉬시는 통증입니다.” 무릎 속을 가리키면서, “그리고는 다리 아래로 움직입니다. 어느 때는 발목까지 뻗어나가 발까지 아프지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좋아요.” 나는 마당에 있는 새 모이통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것을 봐요.” 다람쥐 한 마리가 모이통에 올라앉아 땅에 있는 다람쥐에게 해바라기 씨를 던지고 있었다. “저 다람쥐는 새끼를 밴 것 같은데요.” 그가 말했다. “모이통에 있는 다람쥐와 서로 짝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얼마를 지켜보다가 그가 말하기를, “도토리를 주워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보입니다.”

“무릎은 좀 어때요?”

“오! 언제나처럼 아프지요.” 그는 몇 초를 들여 무릎에 주의를 모으고 몇 번 움직여 보았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아픕니다.” 그는 나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한 거의 동시에 첫 깨달음을 경험했다. “그것 참 재미있네요. 무릎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 재미있네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다른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요. 이 통증은 다리의 움직임 보다는 뭔가 다른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리의 움직임은 그것을 가장 시킬 뿐이지요.”

“그 뭔가라는 것을 묘사해 볼 수 있나요?”

몇 분이 지나서야 그가 하는 말이,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의 주의를 다시 바깥으로 옮길때라고 여겨 이렇게 물었다. “그 다람쥐들은 어디로 갔나요?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모르겠어요. 아마 다람쥐들이 매를 본 건 아닐까요?”

“매가 다람쥐를 해치나요?”

“아뇨. 다람쥐가 그저 조심하는 걸거예요. 매는 주로 도마뱀을 먹습니다. 한 마리의 매가 가끔씩 정원에 있는 새 수목대에 찾아와 훑어 보곤 합니다. 때론 다람쥐들이 매를 아내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혹 매가 새끼 다람쥐를 발견한다면 그 새끼는 매의 저녁식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무릎은 좀 어떻습니까?”

\*CHP: 창조 다루기, 우주적 의식이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든 아봐타 교재의 차원 높은 연습.

“오, 아프지요. 그런데 웃습네요.”

“뭐가요?”

“무릎에 주의를 쏟을 때 보다 주의를 건우려고 할 때 더 통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무릎을 문지르면서 말을 계속한다. “아마 이것이 주의를 받기 원하는 것 같고 주의를 받지 못할 때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회상에 잠기는 것 같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주의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내 무릎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요.”

“지금은 어떠세요?”

“오, 아직도 아파요. 이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네요.”

“어떻게요?”

“오, 이것은 나의 기분을 좋지 않게 합니다. 전혀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목발을 딛고 있는 늙은 걸인처럼 구제불능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기분이에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지만 나는 정말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때론 나는 이것을 어떤 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두 손 안에서 일그러져 있다. 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 한다. “미안합니다.” 그는 털어버렸다. “더이상 이대로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 강한 감정 같은 것이 무릎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묘사해 볼 수 있겠어요?”

“오, 맏소사! 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큼니다. 나는 많은 애를 썼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노력해 보았어요. 그것이 나를 무릎에게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의 기분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 재미있네요. 그것이 나를 무릎에게까지 오게 했다.” 그는 동시에 울고 웃는다. 나는 그의 감정이 스스로 누그러지기를 기다렸다.

꽤 시간이 흘러 다시 새모이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물었다. “붉은 흉관조(미국에 흔한 새의 일종)가 찾아 오기는 합니까?”

“그래요, 4시경에는 온식구가 날아옵니다. 아직 그들이 오기에는 이른 시간이네요. 흉관조처럼 머리가 뾰족한 갈색의 작은 새도 있지요.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순해서 가끔 창틀에 앉기도 합니다.”

“무릎은 좀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마치 운동을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무릎에게까지 오게 했다는 생각이 아픔을 조금 가시게 했나 봅니다. 내가 무릎에게까지 오게 했다는 생각을 많이 저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아버지였는지, ‘무릎 꿇고 앉아!’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때 마치 신호를 받았다는 듯이 빨간 흉관조가 새 모이통에 나타났다. “저기봐요. 저것은 수컷입니다.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암컷의 색조는 보다 흐립니다.”

얼마동안 우리 두 사람은 그 새를 바라 보았다.

“무릎은 어떤가요?” 내가 물었다.

“별로요. 사실 지금은 무릎의 느낌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가도 또 나타납니다.”

“언제 그럴습니까?”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나는 무릎이 정말 아플때만 생각합니다. 혹 일과가 몹시 힘들때는 밤새 아프지요. 그러나 어느날 밤-아주 가끔-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으로 날씨를 예측한다는 농부들이 생각나네요” 그가 다시 회상에 잠긴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저의 할아버지가 마당에 온도계를 걸어 놓았는데 내가 그저 장난삼아 돌을 던져 산산조각이났어요. 작은 유리조각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지

요. 가끔 그와 같은 유리조각이 내 무릎 뼈에 박여 있는 듯한 느낌이예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내 생각에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단단히 혼이 날 것 같아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저기 갈색의 작은 새가 날아 왔네요.” 내가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것이예요. 머리 위에 뾰족한 것 보입니까? 저 높은 흉관조 보다는 다르게 움직이지만 빠릅니다.”

우리는 얼마동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주의를 다시 무릎으로 흘러갔다. “아직도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어떻게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무릎에 총을 맞은 것 같아요. 남북전쟁의 전사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전진하다 무릎에 총을 맞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당시 보병들이 쓰았던 총알은 몹시도 아팠을 겁니다. 총을 맞은

아바타 마스터가 안내하는 진리는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계를 거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식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본보기일 따름이다.

사람은 주의가 온통 거기에 쓰였을 겁니다. 어찌면 내 무릎이 전생에서부터 아파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믿으세요?”

“네, 가끔은요.”

“내가 말하는데, 만일 당신이 보병들이 쓰아대는 총에 맞는다면 그것은 너무 아파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자기 무릎을 훑어보면서 말한다. “여기좀 봐요. 여기에 총알 크기에 빨간 상처가 있지요. 아니면 이빨 자국인가?”

“이빨 자국?”

“그래요. 내 무릎이 왜 아플까 상상해 보았는데, 무엇인가에 물렸을 때 그리고 그 이빨이 뼈에 침투하기까지 물렸을 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본 것으로만으로도 내 무릎을 아프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도망치고 싶게 하지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지요. 당신은 통증과 두려움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지요. 어휴!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는 자신의 팔을 걷어 소름이 끼쳤음을 보인다.

“무릎은 어때요?”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낮잠을 자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 피곤한 느낌이 무릎에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기에 누워 전혀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기분입니다.” 그는 라운지 의자에 폭 가라앉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눈은 뜨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남북전쟁에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어요. 들판에 누워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들판에서 벗어나 병원에 누워있고 내 다리를 잘라냈어요. 내 이 빌어먹을 다리를 말입니다. 오, 나는 그저 잠에 빠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잠을 자고 싶어요. 이것은 뭔가 익숙한 기분입니다.”

몇 분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머리를 흔들면서 웃기 시작한다. “며칠전 내가 의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무릎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 다리를 잘라 내라고 했어요.”

“그것 참 재미있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무릎을 가리키면서 묻고는 스스로 대답한다. “환각지통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수족이 절단된 사람이 없어진 팔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하지요 팔 전체가 없어졌는데도 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환각 무릎지통이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느낌이었다.

“글쎄요,” 그가 말했다. “내가 무릎의 아픔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내게 무엇을 했습니까?”

“보세요, 다람쥐가 다시 나타났어요.”

(한 주 후에 검토해 본 결과 무릎은 지속적인 차도를 보이고, 아바타 코-스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임)